

살인 전력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 18시간 광주 도심 누비고 다녀

정신질환자 관리 '구멍'...불안한 시민들

조울증 환자 고속버스 안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무방비 노출 '아찔'
광주 질환자 6000명 육박 추산...안전 책임질 지자체는 '수수방관'

살인 전력 있는 조현병 환자가 병원을 탈출해 광주 도심을 활보하고 조울증 환자가 고속버스에서 흉기로 승객을 공격하는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살인 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18시간 동안 버스 등 대중 교통을 타고 광주 도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광주시민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하루였던 셈이다.

시민들은 "살인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했다면 시민에게 언론이나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조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관계 기관의 안전한 대처를 꼬집고 있다.

9일 광주광산경찰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도로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다 살인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한 병원 3층 폐쇄병동에서 탈출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현금 3만원을 들고 병원을 탈출한 김씨는 18시간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광주 도심 곳곳을 돌아다녔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서구의 한 지역에 도착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동구 소재 병무청 인근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후 도보로 금

남로의 한 교회를 찾아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금남로에서 버스를 타고 북구 오룡동 인근으로 이동했다. "줄무늬 옷을 입은 조현병 환자가 탈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30대 초반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김씨는 지난 2011년 장성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5년을 받아 광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이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치료감호가 가중료된 후 광주시 광산구 한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지내오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

김씨가 도주한 병원은 지난 8일 24시간 동안 폐쇄 병동의 시정 장치를 잠그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 시스템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김씨가 달아난 1시간 뒤에야 도주 사실을 파악, 광주보호관찰소에도 1시간 늦게 신고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남 통영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여성과 남성은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도 6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아예 없다.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안



9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 첨단지구대에서 경찰이 치료감호 도중 달아났다가 시민제보로 붙잡힌 김모(48·왼쪽)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5991명의 정신질환

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조현병 환자수는 2015년 3212명에서 124명 늘어난 3336명으로 집계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고생 성추행 혐의 교장 구속영장 신청

교사 4명도 검찰 송치

광주 광산경찰은 9일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A 고교의 전 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학교 교사 4명도 같은 혐의 또는 여학생들을 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교사들도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성추행 민원을 접수받은 뒤 해당 학교 학생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으며, 상당수 학생이 교장과 일부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B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사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고흥서...소형어선-낙시배 충돌 1명 사망

9일 오전 6시 26분께 고흥군 도양읍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앞바다에서 0.6t 소형어선과 9.77t급 낙시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돼 선장 A(79)씨와 부인 B(74)씨가 낙시배 선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 낙시배에는 승객 16명과 선장·선원 등 총 18명이 타고 있었

으며 부상자는 없었다.

해경은 낙시배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운항 중 어선을 보지 못했다"는 낙시배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군산서...예인선과 충돌 전복 어선 선장 실종

해경 경비함 등 동원 수색

예인선과 충돌해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실종자가 조류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9일 "실종된 선장 권모(56)씨를 찾기 위해 밤새 뒤집힌 어선 주변을 수색했다"며 "배 안에서는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수색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경비함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 14척과 수색인

력 300여 명이 현장에 투입했다. 해경은 실시간 기상 상황과 바닷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색범위를 실종 지점에서 24km까지 넓혀 권씨 행방을 찾고 있다.

권씨는 전날 오후 7시 13분께 군산시 육도면 어청도 남동쪽 해상에서 전복된 7.93t급 새우잡이 배에서 실종됐다. 함께 있던 나머지 선원 4명은 '어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중)에서 호흡하며 버틴 끝에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해경에 구조됐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경찰 간부가 '취업 사기' 기아차 전 노조간부 도피 도왔다

원룸 구해주고 수차례 통화 전남경찰 소속 경정 조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간부가 19억 원대 취업사기범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간부의 도피 행각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행진 혐의(사기)로 구속한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

(48)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및 은닉)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정을 조사하고 있다.

김 경정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에서 원룸을 얻어 도피 중이던 황씨를 돕고, 도피 사실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대학 친구인 황씨를 대신해 도피 장소로 사용한 원룸을 직접 얻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 경정이 황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황씨 행방을 추궁하기도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은 김 경정이 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황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 경정을 소환해 황씨 도피에 개입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경정은 "황씨가 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친구라서 도와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간 황씨를 뒤쫓았으나, 시민 제보로 붙잡을 수 있었다"며 "기아차 고위직과의 연루 여부 등 구조적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양예원 사건' 조사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 투신 신고...경찰 수색 중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9일 경기 남양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행인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차량은 최근 양예원씨 유출사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40대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다.

/연합뉴스

출장마사지 인줄 알았더니...성매매 사이트 187곳 철폐



○광주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전국망을 갖춘 기업형 성매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철폐.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를 심의한 결과,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결정하는 한편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것.

○방심위가 이번엔 접속을 차단한 성매매사이트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운영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쓰고, 가격·연락처 및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과 나이, 신체 사이즈,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방심위 관계자는 "(이들은)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성매매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라며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